

# 광양에 남해안남중권 중기연수원 등지

### 사업비 294억...철강·석유화학·우주항공 등 지역 특화교육 기대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과 인력 양성을 맡고 있는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이 광양에 들어선다. 중소기업연수원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철강·석유화학·우주항공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타지역 연수원을 이용하던 도내 근로자의 불편도 덜 수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286억원, 광양시 8억원(부지 제공) 등 총 294억원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 기본조사, 실시설계, 건축 과정을 거쳐 문을 열 예정이다. 광양시는 시유지를 연수원 부지로 무상 제공한다.

이번 연수원 유치는 전남과 경남의 9개 시·군이 참여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19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공동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기존 연수원의 중복, 연수원 평균 가동률 저조 등의 사유로 신규 연수원 건립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특히 전국에 6개 연수원만 운영하고 있고, 광양에 이미 호남연수원

이 있어 전남에 신규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양시 등과 함께 국회, 기재부, 중기부를 대상으로 연수원 건립 당위성을 지속해서 설득했다. 철강, 석유화학, 우주항공 등 전남 산업에 특화된 전문 연수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지 무상 제공, 교육 수요 발굴 협력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유치가 성공했다.

이건설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소기업연수원 유치가 따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수원이 순조롭게 건립·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민간공원, 명품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 이용섭 시장, 21일 간부회의서 당부...묘지이장·풍암저수지 수질개선·생태복원 등 주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민원과 불편해소는 물론 생태까지 복원하는 명품공원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송암공원 2725기, 중외공원 1580기 등 도시공원 부지 내 묘지 7961기를 이장해 주민의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면서 “중암공원 1지구 내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악취 및 녹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도시공원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신용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이 하루빨리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예산투입 없이 민간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비만 1조 4811억원에 이른다. 현재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중 마루, 봉산, 신용, 안암산 4개 공원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공원은 토지 보상 중이다.

/박진희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에너지전환의 날 행사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봉웨딩홀에서 (재)국제기후환경센터와 (재)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2021년 광주 에너지 전환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김광란 위원장과 장연주 부위원장, 마을 활동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정부 ‘50년 불균형 정책’ 최대 피해 광주·전남 도약 위해 미래정책 제시”

###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한 마디 한 마디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이 묻어났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 소외와 쇠락을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광주·전남이 이제라도 '하나'라는 동질감 속에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3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연구원을 2년째 이끌고 있는 박재영(67·사진) 원장을 만났다. 그는 담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행정고시를 거쳐 전남도, 청와대, 내부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등에서 근무했다. 1998년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는 등 학구파이기도 했다. 전남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선된 뒤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하는 시정인사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으로 통합한 광주전남 연구원의 수장을 맡을 적임자였던 셈이다.

박 원장은 지방분권, 혁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내면서 국가 재정과 권력에서 소외된 광주·전남의 현실을 목도하기도 했다. 원장에 취임한 뒤 연구원에 대한 각계의 따가운 지적을 인정하며, 내부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종합 연구기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광주·전남의 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50년 이상 중앙정부의 불균형 정책과 제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기반시설 미흡-쇠퇴-인구-자본 유출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이 격차는 미래 100년간 더 심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이 영남권, 충청권에도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국가 재정 투입에서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민과 지역정권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 지역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과거 광주는 중심도시로 전남의 인적·물적 자원을 흡수하며 성장했고, 전남은 충분히 역량이 있었다. 하지만 전남이 더이상 내줄 것이 없고, 광주의 인구마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가 사라지고, 전국 최초로 전남은 201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쇠락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시도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함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 민선 7기의 성과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모두 훌륭하게 과업을 수행하셨다고 본다.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전남을 블루이코노미의 거점이자 에너지 중심지로 우뚝 세웠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광주·전남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은 아쉬



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2008년부터 공동프로젝트를 하며 동질감을 쌓아나갔다. 반면 광주·전남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에 이해만을 요구했다. 광역경제권 형성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이다. 새만금까지도 포함해 서부권 광문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공항이 불가능하다면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그려야 했는데,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민선 7기가 가버렸다. 광주시가 시민을 설득해야 했으며, 시도가 눈앞의 손실을 감수하고 지역 전체의 미래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 공항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정부에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총출동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중심도시 광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남이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 자신이 생각하는 광주·전남의 미래상은.

▲전남은 풍경이 아름답고, 누구나 쉴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다. 와서 살만한 지역이 돼 도시민들이 귀농·귀어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넘치는 모습이 떠오른다. 광주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질 높은 교육과 고차원의 서비스, 첨단과학기술 등이 어우러진 도시가 미래 모습이다. 다만 도시 외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확장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다.

-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력과 장비, 지원 규모 등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자신이 필요한 기관으로 만드는데 치중하지 말고, 연구원 역시 시도의 연구과제만을 다루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과거, 현재를 분석하고, 타 지역, 세계 각 지역과 비교하며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역 내 연구의 종합센터 역할도 해야 한다. 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연구과제 연계, 중간평가, 성과 총괄 등도 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이 빅데이터 아카이브처럼 지역 모든 연구 정보를 모으게 하고, 정리하며, 공유시키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한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지역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지나친 패배감을 느끼지 말았으면 한다.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를 극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